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올해 2018년은 섭리역사를 시작한 1978년 이후 40년째 되는 해이다. 40년 동안 해 줄 것을 다 해 주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하면 ‘은혜 위에 은혜’ 요,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불을 받고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2. <지난날 해 준 것>을 잊으면, ‘남’ 이 된다. 남이 되면 남같이 대하고 만다. 그러면 혼자 시험 들고 허우적거리고 울며불며 자기 길을 가게 된다. 가령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해 준 것을 잊으면, ‘결혼을 안 했을 때’ 와 같이 ‘남남’ 인 것이다.
3.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으면,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대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4.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서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돈을 지불한 것을 잊으면 또 낸다. 또 잊어버리면, 또 내야 한다. 고로 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잊으면 안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해 드린 것>도 잊으면 안 된다.
5. 지난날 하나님은 해 줄 것을 다 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것도 다 이뤄 주셨다. 무엇을 이뤄 주셨는지 보아라.
6. 섭리역사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난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

아를 보내 주시어 그를 통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 말세에 대한 예언을 비롯해 각종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 <메시아>를 통해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40년 역사를 펼 수 없고, 창조 목적도 이룰 수 없다.

7. <섭리사에 늦게 온 자들>에게 이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루실까?’ 하며 희망에 차서 기다리기만 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뤘으니, 이야기해 주어라.

8. 성경의 예언대로 모두 이루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듯이, 동시성으로 <이 시대>도 주가 부활하실 때 한국에 지진이 일어났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시대>는 ‘메시아가 부활하기 직전’에 지진이 일어났다. <보다 이른 시간>을 ‘새벽’으로 보는 것이다. <지혜자>는 이같이 성경을 푼다. <모르는 자>는 ‘언제 새벽에 일어났지?’ 하고 생각한다. 본래 한국은 지진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을 중심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본은 <부활의 때를 알리기 위한 징조>였다.

9. 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자꾸 증거를 해야 한다.

10. 왜 지난날을 잊지 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기간을 통해 성서의 시대적 예언을 다 이루셨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섭리사에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삼위와 주를 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삼위와 주와 마음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된다. 해 줬는데도 모르고 대했기 때문이다.

11. 지난날을 잊고 대하면, 유대인 같은 꼴이 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 이루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기다린다. 모르고 기다리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느냐?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육신의 정한 이치인데, 예수님을 또 한 번 보낼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못 봤으니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만 보여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겠느냐? 안 된다. 이미 끝난 것이다. 고로 기억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

12. <신앙으로 늦게 태어난 자들>은 이미 주가 다 이룬 후에 왔기에 못 보고 ‘성약역사는 맞는데, 왜 성경에서 말한 말세 심판을 안 하지? 이방인들 예언은 왜 안 이뤄졌지? 예수님 때는 부활 후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부활 때 왜 지진이 안 일어나지?’ 한다. - <주>가 와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뤘다. <주>가 오면 말세 때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때 당시 모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 1999년도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즉시 세계 뉴스를 통해 세밀하게 증거하며 알려 주셨다. 말세 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한 것과 같이, 그때 프랑스 지역에 강풍이 강타하여 약 300만 명의 이주민이 생기고, 베르사유 궁전 내의 나무만 2000주 이상이 넘어졌다. 선생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전에 모두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 심판 전에 가장 세밀하게 찍

어 둔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새 역사 2000년대를 최고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나라인 프랑스에서 맞이하겠다고, 약 2300만 명이 프랑스에 숙소를 신청할 정도였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놔서 완전히 ‘트리 덩어리’라고 할 정도였다. 그 전에 선생이 프랑스에 가서 평화대화를 했었다. 1999년 7월에 선생은 미국에 있으면서 ‘21일 금식’을 하였다. 금식 후에 원래 독일에 지휘하러 가려다 독일행 비행기 표가 없어서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날이었고, 그리고 말세 때 해가 어두워진다고 한 것과 같이 개기일식도 선생이 프랑스에 갔을 때 일어나 낮에도 캄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선생이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동안 문화 교류를 했던 나라들을 모두 불러서 평화의 행사를 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두려워서 모두 휴가를 가 버린 상태였다. 방송에 나오기를, 70~80%가 프랑스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평화의 행사를 위한 장소를 얻기가 쉬웠다. 당시 선생은 21일 금식을 하느라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정도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날아다니며 불을 찾다. 그때는 많은 신앙 전쟁으로 인해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며, 근심, 걱정, 머리가 아플 때였다. 고로 금식을 감행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주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갔다. 조건이 잡히면 안 되니, 몸이 말라 가고 뼈가 마를 정도로 해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시중을 들며 다녔다. 이같이 했어도 이론 데만 이뤄서 알지, 다른 데서는 모르고 지나간다. 고로 알도록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다. 또 1999년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새벽 비행기에서 프랑스를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말하기

를 ‘프랑스가 멋있긴 멋있네요.’ 하니 하나님은 “<겔>은 ‘천국’ 이나 <속>은 ‘지옥’ 이다. 그래서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프랑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이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두 명이 마중나와서 말하길, “오늘이요. 프랑스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날이에요. 대마왕이 와서 심판하러 온다는 날이에요. 선생님 이 왔네요. 선생님 우리는 심판 안 하는 거죠?” 하며 깜짝 놀랐다. 선생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움직이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해 1999년 12월 26일에는 폭풍으로 인하여 프랑스에는 150년, 200년 되는 활엽수, 침엽수들 약 2억 5천 주 이상이 넘어지고 쓰러졌다. 폭풍이 너무 강해서 15톤 덤프트럭도 날아갈 정도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심판 하셨다.

13.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을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시대 심판을 하신 것이다.

14. 한번은 선생이 유럽에 있을 때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482년 동안 하나가 안 돼서 싸워 왔는데, 그때 선생이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가서 신부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풀어 주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31일, 천주교와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82년 만에 서로 화해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자는 나에게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개신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 천주교를 한 사람같이 보고, 그동안 오해하고 싸웠던 죄들을 네가 한 것같이 회개하여라.” 하여 석

달 동안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천주교의 실체를 보며 회개하고 성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한 성당에서 신부들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하고 불과 40일 만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482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인데, 선생이 가서 40일 만에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한 것이다.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통해 행하신다. 고로, 그때 개신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 후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종교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종교인들끼리 1000명씩, 1500명씩 죽이곤 했다. 이같이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른다.

15. <개신 기독교>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천주교>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고 ‘성자’가 주인인데, 믿는 자들끼리 “교리가 다르다. 풍습이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도 싸웠다. 싸움은 <시대 주인만>이 가서 말린다.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쓰고 나타나시어 그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끝장나고 말았다.

16.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은 모두 <구원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17.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쪼개어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셨다. <주>가 와서 양과 같은 의인들은 ‘황금 천국’에 두시고,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사망권’에

두셨다. 또한 <양과 같은 의인들>은 ‘새 시대’에 두시고,
<염소와 같은 가인들, 악인들>은 ‘구시대’에 두셨다.

18.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독일에 있을 당시 ‘EU 공동체’로 유럽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일도 행하셨다.

19. 지난날을 생각할 때 모두 ‘기적의 역사’였다. 선생은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지난날 이와 같이 행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섭리역사를 펴 나갔다. 그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시며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매일 행해 주신 것이다.

20. 지난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 중에 ‘성약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고로 자꾸 배우고 가르쳐 줘야 늦게 온 자들이 알고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하게 된다.

2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주>를 알고 대하라.” 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같이, 기성인들같이 계속 성경을 읽으며 기다리게 된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며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지구상에 심판할 것을 다 하고 가셨어도, 아직 안 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다.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많은 생명들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다.” 한 것인데 그것이 미약하다. 이는 섭리사 신부들이 해야 된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22.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한 것을 두고, 기독교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사탄>은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다. 무덤에서 썩은 시체가 살아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선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시대 사람들인데 참 한심스럽네요.’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병어리들, 우둔한 자들이 누구냐? 나를 좇지 않는 자들이다. 짓지 않는 개들이다.” 하셨다.

23. <주>가 오면 ‘말씀의 철장’으로 잘못된 관을 다 부수어 놓는다.

24. 많은 자들이 ‘언제 주가 와서 이루어지나?’ 했던 모든 것들을 이미 주가 와서 이루었다. <휴거>를 이뤘고, 도적같이 온다는 말도 이뤘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태어난 날>에 휴거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

25.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모두 이루어졌다. “<주>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는 본 그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노정>대로 예수님이 작은 골짜기 베들레헬에서 나셨듯이, <이 시대>도 ‘동방의 한 나라의 산골짜기, 월명동 작은 마을’에서 오셨다. 성경에서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것과 같이 ‘월명동, 작지 않은 마을’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가

‘시대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땅에 예루살렘을 두리라.” 한 성경 말씀도 ‘땅의 예루살렘이 된 곳, 월명동 자연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음으로 이뤘다. 기독교는 이것을 풀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못 푸니 전부 짝이 안 맞는 격이다. 고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 심판을 하고 공중 휴거가 되면 땅에 예루살렘을 둔다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다. 그러나 <주인>은 알고 제대로 푸니, 땅에 예루살렘을 둔다는 성서의 뜻이 ‘천 년 역사를 펴 갈 하나님의 전을 두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궁, 시대의 궁>은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 시대 천 년 사의 지혜로 만든 하나님의 궁’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을 높은 데 두겠다.” 한 말씀과 같이 해발 450m의 높은 월명동에 ‘하나님의 전’을 두셨다.

26. <주>는 ‘신’이 되어 움직인다. <주>는 ‘빠른 구름’이 되어 행하였고,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이 빠르게 행하였다.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